

보도시점

2026.10.7.(수) 18:00

배포

2026.10.7.(수)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국민 방한 계기, 「한-이집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열려

- 산업부 장관 등 양국 정부 고위급 및 기업인 30여 명 참석

- ①친환경·첨단산업, ②에너지·물류 인프라, ③선진 무역 기반 구축 협력 강화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장관 김정관)는 10월 7일(수)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집트 투자통상부와 한-이집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집트 측에서는 알시시 대통령, 외교·교통·투자통상·산업부 등 4개 부처 장관, 수에즈 운하 경제특구청장 및 기업인 등이, 우리 측에서는 산업부 장관, 대한상의 부회장, 공공기관 및 기업인 등이 참석하였다.

아프리카 내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인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입지를 갖춘 국가로, 역내 주요 물류·생산 거점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국민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부와 기업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국은 이번 BRT에서 에너지·인프라, 제조,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MOU 체결식에서 현대로템과 이집트 터널청은 이집트 신행정수도 수소트램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신행정수도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 모빌리티 도입과 양국 간 철도사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하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양국은 1995년 수교 이래 30여 년간 상호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번 이집트 정상의 방한을 계기로 친환경 조선, 미래차, 방산 등 첨단산업과 에너지·물류 등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한-이집트 CEPA 추진 등 선진 무역 기반 구축을 통해 양국 기업 간 교역과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종엽 (044-203-5710)
		담당자	서기관	안근영 (044-203-5726)
		담당자	사무관	이시원 (044-203-5723)

□ 행사 개요

< 「한-이집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요 >

- (일 시) 2026. 10. 7.(수) 18:00 ~19:00
 - (장 소) 롯데호텔 2F 에메랄드룸
 - (주 최) 한국산업통상부 / 이집트투자통상부
 - (주 관) 한국대한상공회의소 / 이집트주한 이집트 대사관
 - (참석자) 한국-이집트 정부 및 경제계 인사 30여 명
 - 한국 : 산업통상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공공기관, 기업인 등
 - 이집트 : 대통령, 4개* 부처 장관 및 청장**, 기업인 등
- * 외교부 · 교통부 · 투자통상부 · 산업부 장관 ** 수에즈운하 경제특구청장(장관급)

□ 양해각서 주요 내용

MOU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
이집트 신행정수도 수소트램 사업 (^韓 현대로템 - 이집트터널청)	• 트램 44편성 공급, 건설,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사업 •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후속사업 추진방안 구체화